기획특집

경희 신입생들의 역동적 삶을 위한 제언

"경희 주역, 일신우일신 거듭나라"

선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개척해야

새 봄에 맞춰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글을 쓴다.

필자는 그대들의 선배로서 15년간 우리 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을 필한고, 지난 2월 공식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따라서 이 글은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치는 '비장한'(?) 유서일 수 있다. 그러나 대략 칠팔한 전 거주자가 새로 이사오는 사람을 위해 화장실은 상태가 어떻고, 작은 방의 형광등은 수명이 다 됐다는 등 쪽지를 남기는 행위에 비겨 손쉽게 읽고 그냥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1. 선택이라는 행위

이야기는 "여러분은 경희대학교를 선택하였다"를 풀어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자 한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행위이다. 고교시절에 배웠던 프루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연상해 주면 좋겠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선택은 삶의 구비마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태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이느 것 하나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했다. 특히 학교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와 집안, 나아가 조국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추첨으로 타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강요(?)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대학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20여년동안 그나마 처음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물론 선생님과 부모님의 조언과 성적에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다— 그 선택은 입학원서에 여러분의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저께 입학식에서 "나는 이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운운"으로 이어지는 선서를 통해 '세계만방에 고하여' 공식화되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선택한 학교가 경희대학교라는 점, 처음이기에 더욱 귀중한 그 선택의 역사적 의미를 소중히 여겨주기 바란다.

2. 경희정신은 창조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경희대학교에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것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 중요한 선택이 요란에 새긴 '주홍글씨'처럼 평생을 짐짝 멕스에 시달리게 할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위기 때마다 구해줄 도깨비 방망이같은 면죄부의 선택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세칭 명문대학'이라고 할 때의 그 '세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는 많은 학파의 경우 세칭 명문대학은 아니다. 장작전대 이 점이 현재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고, 억시 앞으로의 삶을 괜지 어둡게 만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일 터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의 세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세평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칭은 결국 그 대학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러분의 선택은 '이미' 세칭 명문인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칭 명문을 '만들려는'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다름 아니었다고 보아진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학교는 명문을 만들려는 대학이다. 그리고 그 길을 근 40여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화톳아 치듯 달려온 학교이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50년대의 우리 학교, 60년대의 우리 학교에 대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촌평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이만큼 커진 것이 대단하다는 소리도 함께 들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인 만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도모한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정신이었다. 그것이 70년대 '새계로 움비하는 새 경희'라는 격언에서, 90년대의 '혁동으로 새 경희, 화합으로 대 경희'로 이어지는 '새로움'에의 추구이며, 그 새로움을 추구한 전략이 결국 운동방식—잘 살기, 밝은 사회, 인류사회재건 운동—들이었다. 그 구체적인 운동들의 방향성이 옳았는가, 아닌가는 다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치달리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대학, 이른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전투의 과정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은 역으로 우리 대학이 내내 '허기의식', 즉 현재의 위치를 못내 아쉬워하는 배고픔의 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도 된다. 해서는, 또는 배고픈 가운데서 힘을 뻗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신적 집중—'베짱'—이 요구된다. 권것 없이 어깨와 배를 쑥 내미는 것을 '뚱배짱'이라고 허거나와 형편없는 자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화톳아치기 위해서는 뚱배짱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것의 상징은 크라운판 앞 벽화에서 잘 나타난다고 본다. 좌측의 '세계의 심대 불가사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측의 '한국의 8대 불가사의' 속에는 '뻔뻔스럽게도' 경희금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남들이 사 한번 웃고 말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웃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기하는 입술깨물이며, 배고픈 자가 내일을 도모하면서 내미는 뚱배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을,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운동적 사고와 오늘의 우리 모습을 직시하자는 사고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학교가 대략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학내 분규를 빚은 것은 어쩌보면 학교 당당자들의 운동지향성과 학생들의 현실(사실) 중시 사이의 다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허기의식, 운동의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학교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그 창조에의 욕구속에 발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대들은 우리들의 단순한 후배들이 아니다. 우리가 밟은 길을 좇아올 존재들이 아니다. 그대들은 선배들의 걸음에서 득실을 헤아리는 주체적 존재이며, 새 길을 만들어야 하는 창조 분들의 어법을 빌자면, "웬 창조?", "웬 운동?"하실 터이며, 무엇 창조하자는 것인지도 탈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다만 대학의 정신을 되새김질 할으로써 이에 가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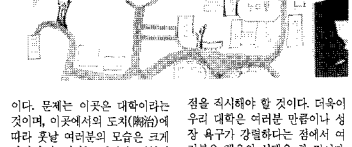
대학을 영어로 "university"라고 하거니와, 유니버시티의 원래의 의미는 계약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예초에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 여기에 선생들을 모셔와서 가르치고 배우는 계약을 한 것이 대학의 시원이었던 것이다.

경제사상가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옥스포드 대학교수를 학기중에 그만두고 프랑스 귀족의 가정교사로 갔을 때, 그가 그 대학의 학생조합에 대해 '이미 받았던 수업료를 환불하겠노라'고 편지보낸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 '선생님의 그간동안 수업만 해도 돈값을 다했으니 걱정마시라'는 학생회측의 답신도 있다. 이들은 결국 대학이 학생조합과 교수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예시의 일단이다.

여러분은 입학 때 학교측과 계약을 했다. 여러분의 부모들 또는 친지들이 재정보증을 섰고, 여러분은 입학하겠다는 도장을 찍었으며, 학교는 총장명의로 입학을 허락한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학중에 학칙을 준수하고 기물을 파손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을 했다. 이로써 학교와 학생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교수들은 대학과 채용계약을 맺었다. 단순화시키자면 대학은 이들의 지식을 판매하면 틀림없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쪽도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학생과 교수와의 계약이다. 여러분은 수업을 듣기위해 교수가 설강한 강좌를 선택한다. 그러면 교수는 실라버스(syllabus)를 여러분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한다'는 계약조건의 제시이다. 교수는 하나이고, 학생은 많으니 들어가면서 도장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시에 응하여 출석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교수와 학생은 그 계약관계를 한 학기동안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에는 기필코 권리, 의무관계가 따른다. 교수는 여러분이 낸 등록금에 마땅할 만큼 성실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가 이끄는 가르침을 충실히 들어야할 의무가 있다. 교수의 극단적 권리행사는 'F학점'으로 '지행'된다. 반면 교수의 가르침이 돈값을 다하지 못하면 총장에게 소청할 수 있고, 또한 데모도 할 수 있다. 그것이 학생의 권리이다. 이렇게 대학은 학교와 교수, 학교와 학생, 교수와 학생사이의 계약관계—권리, 의무관계로 이루어진 냉정한 장이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보리쌀 팔아서' 대학 보낸 그 돈의 값을 냉정하게 되찾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측에 요구할 것, 교수에게 요구할 것은 충분하게 요구해야 한다. 역으로 교수가 요구하는 것,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정신이며, 또한 그것은 종내 계약 당사자들 사이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긴장속에서 부패는 방지되고 학술의 깊이는 더해질 수 있다.



4. 글을 맺으면서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경희대학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4년이나 또 그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이곳은 대학이라는 것이며, 이곳에서의 도치(陶治)에 따라 훗날 여러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란 훗날의 결과를 위한 학습의 또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세월을 헌솜으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선택은 결국 당신 스스로 했다는 점과 그 선택에 충실할지의 여부도 결국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여러분 만큼이나 성장 욕구가 강렬하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행운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은 냉정한 장인만큼 여러분들이 무언가 빼앗아 가려는 적극적 자세 앞에서만 복종할 것이다. 다른 오래된 대학의 학생들이 선배들의 명성에 제어 지기 발자국을 남길 여지가 거의 없는데 반해, 우리 학교는 아직 젊은 대학이기에, 뭔가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대학이기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찍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젊은 녀석들이 칙칙하게 대기업체 사원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될 때 되더라도—대기업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에는 몸을 던져 연구하는 지새로, 요컨데 가슴과 배를 쑥 내밀고서 날이 가지 않는 길, 또는 남이 갔으되 더 공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자신에 찬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봄조차 고개숙일 신선한 그대들을 반기면서 경희인의 일원이 된 것을 동지의 입장에서 충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는다.

배 병 삼
(본교·동문)

계약에는 기필코 권리, 의무관계가 따른다. 교수는 학생이 낸 등록금에 마땅할 만큼 성실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학생은 교수가 이끄는 가르침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고 세상주인으로 창조하는 대학인

선택은 결국 당신 스스로 했다는 점과 그 선택에 충실할 지의 여부도 결국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주한미군범죄…공청회'를 다녀와서

짓밟힌 여인, 유린된 자주성

"이땅에는 살아 있는 윤금이가 너무도 많다" 3년동안 주한미군 범죄사례를 추적해 온 오연호('말'지 기자)씨의 말이다.

온몸에 피멍과 타박상, 항문에서 28㎝나 우산이 꽂혀 들어 갔고 자궁에는 콜라병이 박혀 있는 벌거벗은 시체… 한 미군 절대부의 죽음은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했고 그 분노는 이제 더이상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유린당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변했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공대위는 규탄집회, 미대사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벌이며 국민의 관심을 모우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5일 2시 기독교회관에서 '주한미군범죄 근절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이상희(외대·국제법)교수의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이후 개선 방향'과 오연호('말'지 기자)씨의 '주한미군범죄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주제발표를 비롯하여 동두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이선다면 '미군에게 당했다는 것도 죄'라는 희생자들의 호소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연호기자는 미군이 '그토록 하찮은 이유로 그토록 끔찍한 짐승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삐아픈 현실에서 우리국민의 강한 자주의식은 큰 무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자가 발표한 미군범죄 통기의 40% 이상이 '이유없다'이고 심지어는 '쉬운하는 것을 말려서' '이유없는 구타에 항의한다고'라는 범죄동기까지 나와 미군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땅의 인권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게 한다.

주한미군철수라는 근본적 처유대책을 이루기까지 행정협정의 개정, 주한미군 범죄센터의 상시적 설치, 미군전담형사와 법무관 기지배치 등 많은 대책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태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끝임없는 관심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점미경 記者)

블랙에 생명을, 칼라로 액센트—

이젠, 칼라액센트로 설득하십시오.

상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칼라액센트!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서류수첩도 다채가지—
중요한 부분엔 칼라로 액센트를!
흑백시대에 칼라로 생명을!
새로운 HP칼라 잉크젯 프린터—데스크젯 505K
당신을 설득의 달인자로 만들어드립니다.

놀랍다! 칼라이면서 가격은 모노—

HP데스크젯 505K는 흑백시대에 원하는 칼라를 저원해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도트프린터 수준, 또한 놀라운 것은 폭넓은 호환성에 한글·한자체에서 칼라·그래픽까지 레이저급 출력을 자랑한다는 사실, Fortune誌가 선정한 No.1 컴퓨터전문회사, 휴렛패커드의 앞선기술이 만든 데스크젯 505K—3년간의 무상보증으로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블랙을 돕는 칼라액센트 · 성능만족, 가격만족 · 출력은 레이저급 · 호환성에서 으뜸 · 저소음이라 더욱 만족

새로운 HP칼라잉크젯 프린터—
데스크젯 505K

*당사 고객문의센터는 HP 데스크젯에 관한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080-023-2323(수신자부담)

■DESKJET 505K 문의 및 취급점 서울 : 나인시스템(주) 561-7270 (주)대산정보 511-1271 (주)삼 문 786-2121 삼성전자(주) 513-1256 대구 : 동인시스템(주) 053)421-3225 소모품 취급점 : 한국캐드기술 525-7700
뉴니온컴퓨터(주) 587-3500 (주)아트로한 565-8813 (주)칼라트로닌트 706-3047 부산 : J C 5(주) 051)633-0077 대한데이터시스템 561-1021

삼성휴렛팩커드